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정 해 원
(진주교육대학교)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타인은 어머니이고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에서 가족, 친척, 또래관계 등으로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 경험을 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과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자기개념과 성격발달,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에도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아동의 대인관계는 가족에서 시작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사회적 생활공간이 확대되면서 대인관계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간다. 그런데 사회가 핵가족화, 산업화되면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혈연관계는 축소되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하는 또래가 증가되고 이러한 또래관계는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성격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경험하는 교우관계(peer relation)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같은 또래들과 가지게 되는 인간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PASCAL 대백과사전, 2002). 또한 교우관계는 절친한 교우에서 방관자적 교우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Runner, 1949; 김성원, 1993). 그리고 아동기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과의 관계경험은 일종의 사회적 상호교환과정을 통해 사회 실체에 대한 이해로 확장된다(성영혜 등, 2001).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이해로까지 확산되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지각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교우관계 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계유지와 갈등해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즉 또래는 자신의 인성과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으로서 모델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성숙한 판단을 증가시키게 된다(공인숙, 1996). 그리고 아동은 소속감이나 애정, 칭찬이나 인정, 신뢰감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또래관계에서 관심과 인정, 지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미움, 증오, 배척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경험도 하게 된다.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은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고 우울, 불안, 폭력, 낮은 학업성취, 무단결석, 학교탈락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적응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교우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며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Parker & Asher, 1987; 심희옥, 2000). 거부당하는 아동은 불행하고 소외되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업수행이 저조하다. 또한 아동기의 또래거부는 청년기의 무단결석, 학교탈락 및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리고 인간발달이란 지속적이고 누적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교우관계의 경험과 교우관계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격과 사회적 능력은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부적응적 문제 예방과 치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이 경험한 교우관계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기 교우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교우관계문제의 형태와 상대적 빈도 및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치료를 한다면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나타내는 심리적 문제나 증상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및 대인관계적 요소들이 상호 연결된 일종의 망을 구성하는 복잡한 주관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Horowitz & Vitkus, 1986; Horowitz, Weckler, & Doren, 1983). 이러한 연결망에서 대인관계적 요소를 밝히고 수정함으로써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요소를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증상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교우관계문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통해 아동들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아동과 상담가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동의 교우관계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사회성 측정법(Moreno, 1930), 교우관계 검사(김형태, 1989; 고영본, 1981), 교우관계의 질 측정 도구(Parker & Asher, 1989), 교우관계 만족도 측정 도구(Parker & Asher, 1993) 등이 있다. 그리고 교우관계상의 문제나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수줍음척도(Cheek

& Buss, 1981), 아동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사회정서적 고립 척도(허승희, 1993), 불안검사(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공격척도(Orpinas & Frankowski, 2001)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척도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아동의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교우관계 특성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집단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인의 교우관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든지, 또 교우관계문제를 측정하는 도구의 경우, 단편적인 문제는 평가하지만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사회성측정법은 아동들 사이의 선호나 배척을 나타내주는 하지만 왜 선호되고 배척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장휘숙, 2001). 또 교우관계에 있어서 주장성이나 공격성, 사회적 억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많지만 교우관계에서 우호적 지배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는 경향이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책임감, 과양육 및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허용성이나 배려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고 대인관계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원의 중심에서 개인의 위치 또는 각도와 벡터(vector length)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적인 대인관계적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Pincus, 1994; 김영환·홍상환, 1999)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근거하여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인관계 원형모형은 성격특질이나 정서가 개념적, 수학적으로 원형으로 배열된다는 것을 가정한다(Plutchik & Conte, 1997). Leary(1957)의 모형에 따르면 우호-냉담의 친애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차원이라는 두 차원을 가진 평면 위에 대인관계행동들을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다. 대인관계 원형모형은 친애차원(x 축)과의 각도를 기준으로 원을 8등분 또는 16등분한다. 90°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8분원(octants)을 배열할 수 있는데, 각 분원에 PA, BC, DE, FG, HI, JK, LM, NO라는 부호를 부여한다(정남운, 2005). 8개의 대인관계분원은 이론적 중간점인 90°, 135°, 180°, 225°, 270°, 315°, 360°, 45°를 중심으로 역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8개의 분원은 지나치게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지배분원(PA),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신분원(BC),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경험과 표현이 어려운 냉담분원(DE),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위축분원(FG),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비주장분원(HI), 다른 사람에게 잘 속고 쉽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는 착취분원(JK), 지나치게 타인의 욕구에 신경을 쓰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과양육분원(LM), 지나치게 간섭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간섭분원(NO)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대인관계행동은 8분원들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다. 대인관계 원에서는 바로 옆에 배열된 행동끼리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지

름의 반대편에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배열된다(김영환·홍상환, 1999). 즉, 대인관계 원형모형은 주장성이나 공격성, 불신, 감정 경험과 표현의 어려움, 사회적 위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책임감, 과잉육 및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허용성이나 배려, 우호적 지배성 등 대인관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나타내며 개인별 개별 문항의 편차점수를 사용하여 개인 내에서 어떤 대인관계문제가 다른 대인관계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지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근거하여 성인의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를 근거로 아동의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교우관계문제검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원형모형에 근거하여 척도를 개발하므로 원형모형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형속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의 문항과 기존의 또래관계 측정도구 및 본 연구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수집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문항간 상관, 교정된 문항-전체상관 및 내적 합치도 등을 고려하여 척도별로 문항을 선정한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한다. 셋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우관계문제검사와 관련 있는 여러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본다. 넷째, 척도의 원형속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8분원별 상관행렬과 각 문항의 편차점수를 구하여 주성분분석과 문항별 베리맥스 회전한 후 요인부하량을 검토하며, Fisher(198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와의 차이를 구하여 그 절대값에 코사인(cosine)을 취한 코사인 상관계수를 구한다. 그리고 공식 $A^\circ = 1 - \theta/180$ (θ 는 비교되는 두 각도의 차이)을 사용하여 두 각도 간의 부합도를 구하여 통계적 검증을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예비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경상남도 J시 소재 B 초등학교의 4~6학년 220명(남 118명, 여 102명)을 대상으로 1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문항 수가 5%이상인 자료 5부를 제외한 215명(남 116

명, 여 9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신뢰도, 타당도, 원형속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4~6학년 1,046명을 대상으로 9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9개의 타당도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타당도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의 수가 많아서 표 1과 같이 9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문항 수가 5%이상인 자료 77부를 제외한 96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969명은 남학생 500명(51.6%), 여학생 469명(48.4%)이었고 평균연령은 10.87세(SD=.90)이었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4학년 311명(남 162, 여 149명, 평균나이 9.85세(SD=.39)), 5학년 323명(남 170, 여 153명, 평균나이 10.84세(SD=.39)), 6학년 335명(남 168, 여 167명, 평균나이 11.84세(SD=.39))이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표 본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n	102	118	104	112	104	115	108	102	104
여학생수 (%)	47 (46.1)	53 (44.9)	48 (46.2)	55 (49.1)	52 (50.0)	54 (47.0)	53 (49.1)	50 (49.0)	57 (54.8)
평균연령 (SD)	10.90 (.88)	10.95 (.91)	10.79 (.84)	10.95 (1.04)	10.75 (.89)	10.79 (.90)	10.78 (.88)	10.86 (.81)	11.03 (.87)
학년별 학생수									
4학년	34	33	34	30	38	40	38	33	31
5학년	33	36	41	32	35	41	38	36	31
6학년	35	49	29	50	31	34	32	33	42

주 1. 9개 표본에 모두 교우관계문제검사를 실시하고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표본별로 1~2 가지 지표를 더 실시하였음: 표본 I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표본, 표본 II는 아동용 불안검사, 표본 III은 교우관계검사, 표본 IV는 또래관계기술척도, 표본 V는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표본 VI은 수줍음척도, 표본 VII은 자아존중감검사, 표본 VIII은 아동용 우울검사, 표본 IX는 사회관계척도와 공격행동척도를 같이 실시하였음.

2. 연구도구

가. 예비문항도출을 위한 검사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문항을 도출하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7 종류의 검사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밝히기 위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김영환 외, 2002), (2) 초등학교생의 대인관계적 행동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대인관계성향

검사(신만철, 1992), (3)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와의 공동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교우관계검사(김형태, 1989), (4) 초등학교 고학년의 주장행동을 평정하기 위한 주장행동 평정척도(최홍식, 1990), (5) 아동의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한 수줍음 검사(정창윤, 1997), (6) 아동의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교립의 정도를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사회정서적 교립척도(허승희, 1993), (7) 대인관계에서의 분노와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한 대인관계서의 분노, 소외감 검사(남희경, 2002).

나. 타당도지표

1) 교우관계검사

이 척도는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과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김형태(1989)가 제작하여 문항 분석을 거쳐 사용했던 것을 김영진(2005)이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5점 평정척도로 문항의 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김형태(1989)의 연구에서는 반분신뢰도가 .75, 재검사신뢰도가 .67이었고 김영진(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9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2) 수줍음척도

이 척도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긴장과 억제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eek와 Buss(1981)가 제작한 수줍음척도(Shyness Scale)를 김미경(1992)이 번안하고 박은애(2006)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eek와 Buss(198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8이었고, 박은애(2006)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1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9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3) 아동용 우울검사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8세에서 13세의 소아 연령에 맞게 Kovacs가 변형시킨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CDI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자기 평가법으로 반영토록 고안된 것이다. 각 문항마다 그 정도에 따라서 0~2점으로 평가되기 때

문에 총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조수철, 이영식, 1990).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수철, 이영식(1990)의 결과에 따르면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반분신뢰도는 .71,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2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7문항, 부정적 자기상, 대인관계,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0, .77, .81, .80이었다.

4)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아동의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의 정도를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허승희(1993)가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 및 정서적, 사회적 고립상태를 4개 요인에 따른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까지로 평정되며, 점수의 분포는 최하 32점에서 160점까지 이다. 그러므로 이 점수가 클수록 동료관계에서 고립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허승희(1993)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2문항, 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고립상태, 사회적 고립상태의 내적 합치도는 .93, .78, .92, .90, .86이었다.

5) 아동용 불안검사

아동용 불안검사는 Reynolds와 Richmond(1978)가 Castenada 등(1956)이 개발한 아동용 표현불안척도(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MAS)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이다. 이 검사는 특성불안의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28문항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9문항은 허구척도(lie scale)에 속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1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28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6) 공격행동척도

Orpinas와 Frankowski(2001)의 공격척도를 장휘숙(2002)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외

현적인 공격적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며 회상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 동안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과 분노의 두 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이 척도는 0번(0점)부터 6번 혹은 그 이상(6점)까지의 공격행동 빈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격행동 점수는 0점부터 66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행동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척도는 적은 수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실시가 가능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Orpinas와 Frankowski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1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7) 또래관계기술척도

또래관계기술척도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행동적인 수준에서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는 척도(Peer Relational Skills Scale : PRSS)로 양윤란·오경자(2005)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실시 가능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주도성과 협동/공감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총 19문항으로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평정척도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9-7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양윤란·오경자(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집단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12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19문항, 주장성, 협동과 공감의 내적 합치도는 .86, .78, .82이었다.

8) 사회관계척도

KPRC 사회관계척도는 한국아동 인성평정 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임상척도 중 하나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2005)이 제작한 것이다. 총 14문항으로 4점 평정척도(SOC; social dysfunction)이다.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소외되어 있는 정도,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수준, 수줍음, 인간관계의 폭 및 빈도 등을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의 상승은 아동이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위축되어 있으며,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어려움이나 위축,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며 사회관계를 잘 하는 것을 나타낸다. 내적 합치도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1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8이었다.

9) 자아존중감검사

아동의 자아존중감검사는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I(Self-Esteem Inventory) 단축형을 김경연(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EI는 아동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성인까지 적용범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반적 자아영역, 사회적 자아영역, 가정생활에 관한 자아영역, 학교생활에 관한 자아영역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각 영역에 대한 아동 자신의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원래 척도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Coopersmith가 121명의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항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25문항의 단축형(short form)도 제작하였는데, 50문항 SEI와 25문항 단축형 SEI 간의 척도 상관은 .95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상태나 느낌과 비슷하면 '그렇다'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의 칸에 응답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경연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5이었다.

3.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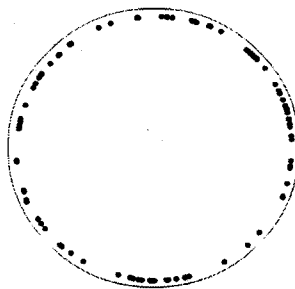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대상아동이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여러 개별 척도별로 척도문항의 5%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윈도우즈용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8개의 원형척도별 문항의 왜도(Kurtosis), 첨도(Skewness),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내적 합치도,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전체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고 다변량 분석을 통해 성과 연령에 따른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리고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및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서 교우관계문제 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및 자아존중감의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에 따라서 두 집단을 선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척도의 원형 속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개인별로 각 문항의 편차 점수를 구하여 주성분분석과 문항별 베리맥스 회전한 후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여 검사도구의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친애(우호-냉담)차원과 통제(지배-순종)차원인 두 차원으로 나누어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 Fisher(198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친애차원과 이루는 하위척도별 각도를 구하고 이론적 각도와 차이를 살펴보고 cosine상관을 구하여 이론적 위치와 부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여섯째, 8개의 하위척도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설정한 T점수와 편차T점수를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문항 도출과 척도의 구성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예비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J시 소재 B 초등학교의 4~6학년 아동 108명에게 교우관계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교우관계문제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 도구 중 교우관계문제의 단일한 특성이나 교우관계와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7가지 검사들에서 문항을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기술한 내용들을 근거로 문항을 만든 것과 기존의 검사도구로부터 55문항을 추출하여 대인관계 원형척도의 하위 영역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55문항과 KIIP-C의 80문항을 합한 135문항의 예비문항을 수집하고 도출하였다. 이러한 예비문항을 초등학교 교사경력 3년 이상인 5명의 교사와 연구자가 4~6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가능한 원문항의 의미와 최대한 같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한 내용을 연구자,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1인 및 KIIP 저자 중 1인이 원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총 90문항을 선택하였다.



[그림 1] 예비문항의 원형배열

이렇게 선정된 예비문항 내용의 적절성과 원형속성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작성한 90 문항을 J시 소재 B 초등학교의 4~6학년 220명(남 118명, 여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15명(남 116명, 여 99명)의 자료를 윈도우용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문항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각 문항의 편차점수를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한 결과 두 가지 요인 즉, 친애와 통제 차원에 대하여 각 문항이 가지는 요인부하량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요인부하량을 친애차원과 이루는 각도로 변환하여 나타낸 결과 골고루 배열되어 있음을 그림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8개의 원형척도별 문항의 왜도, 첨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내적 합치도,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64문항, 각 척도별 8문항으로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는 아동의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4점 평정척도의 총 6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검사는 친구나 또래관계에서 “~ 하기가 어려워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31문항, “너무 또는 지나치게 ~하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부록).

2. 비일관성척도

<표 2> 비일관성척도 문항쌍과 문항 간의 상관계수

비일관성척도 문항	r
2. 다른 아이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해 주기가 어렵다. 22. 다른 아이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43
5.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9. 내 감정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44
11. 내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20. 주장이 강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말하기가 어렵다.	.54
14.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49.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41
24.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40.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44
25.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48.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46
33. 친한 친구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해서 힘들 때가 많다. 50.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48
37. 다른 아이의 기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61. 다른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잘 대해준다.	.43

교우관계문제검사가 아동의 보고에 의존하고 안면타당도가 높아 유사한 문항에 대한 수검자의 반응일치성을 평가하고자 비밀관성척도를 구성하였다. 전체 64개 문항간의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을 찾아내었다. 비밀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항쌍이 전체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효과적이므로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 중에서 인접해 있는 문항쌍을 제외하고 문항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하여 총 8개 문항쌍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비밀관성척도의 문항과 문항 간 상관은 표 2와 같다. 비밀관성척도의 전체 평균은 4.95(SD=2.84), 남학생 평균은 5.29(SD=2.99), 여학생 평균은 4.60(SD=2.63)이었다.

3. 신뢰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전체 교우관계문제의 점수를 나타내는 6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매우 높았고 8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0~.81의 범위에 있었다. 그리고 전체 문항의 반분신뢰도는 .83이었고 8개 하위척도의 반분신뢰도는 .67~.78의 범위에 있었다. 또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고 8개 하위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87의 범위에 있었다.

<표 3>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신뢰도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전체(CT)	.83	.94	.88
통제지배(C1)	.69	.72	.69
자기중심성(C2)	.67	.71	.73
냉담(C3)	.69	.70	.81
사회적 억제(C4)	.75	.77	.87
비주장성(C5)	.78	.81	.86
과순응성(C6)	.73	.77	.84
자기희생(C7)	.75	.75	.75
과관여(C8)	.77	.74	.73

주 1.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4~6학년 969명의 자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6학년 102명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임.

4. 타당도

가. 수렴과 변별 타당도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9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우관계문제검사 총점과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불안검사($r(118)=.60, p<.01$), 사회정서적 고립척도($r(104)=.64, p<.01$), 수줍음척도($r(115)=.61, p<.01$), 아동우울검사($r(102)=.67, p<.01$), 공격행동척도($r(104)=.44, p<.01$)와 같은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교우관계검사($r(104)=-.58, p<.01$), 사회관계척도($r(104)=-.58, p<.01$), 자아존중감검사($r(108)=-.51, p<.01$)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교우관계에서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C1)척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우호적 지배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C8)척도는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다른 하위척도보다 불안검사의 예민함을 재는 하위척도($r(118)=.50, .47, p<.01$)와 상관이 높았으며 특히, 공격행동척도($r(104)=.57, .41, p<.01$)와는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다른 어떤 하위척도보다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공격행동척도와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상관패턴을 살펴보면 통제지배(C1)와 과관여(C8)척도에서 높고 비주장성(C5)척도로 갈수록 상관계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에서 적대적 지배성에 관한 영역으로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나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C2)척도와 친구들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정 등의 경험이나 표현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C3)척도는 친구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적응 등의 친구와의 공동생활을 알아보는 교우관계검사($r(104)=-.56, -.60, p<.01$)와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교우관계검사와 교우관계문제검사와의 상관패턴을 살펴보면 냉담(C3)척도에서 상관계수가 높고 자기희생(C7)척도로 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소심하고 당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C4)척도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C5)척도는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수줍음 척도, 아동우울검사와 .45~.72의 정적 상관이 자아존중감검사, 사회관계척도, 교우관계검사와는 -.42~- .72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정서적 고립척도와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관계를 잘 하는 것을 나타내

는 사회관계척도와 상관성이 높았는데 이 두 타당도 지표와 교우관계문제검사와의 상관패턴을 살펴보면 사회적 억제(C4), 비주장성(C5)척도에서 상관성이 가장 높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는 척도인 과관여(C8)와 통제지배(C1)척도와는 상관성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교우관계문제검사와 타당도지표의 상관

타당도지표	교우관계문제검사								
	전체	C1	C2	C3	C4	C5	C6	C7	C8
불안검사(RCMAS)	.60	.41	.30	.35	.48	.49	.52	.56	.47
과도한 걱정	.51	.26	.21	.28	.38	.44	.50	.49	.38
예민함	.42	.52	.35	.29	.24	.23	.28	.29	.47
신체 수면상의 문제	.21	.14	.07	.17	.15	.19	.22	.25	.14
자존감이나 불행감	.59	.36	.33	.29	.55	.53	.48	.54	.43
교우관계검사	-.58	-.48	-.56	-.60	-.55	-.53	-.36	-.28	-.37
또래관계기술척도									
주장성	-.13	-.01	-.18	-.38	-.32	-.30	-.17	.11	.11
협동과 공감	.05	-.14	-.14	-.08	.09	.02	.13	.27	.08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64	.15	.43	.68	.71	.72	.58	.49	.28
정서적 외로움	.51	.29	.32	.50	.51	.46	.44	.42	.37
사회적 외로움	.51	.01	.33	.53	.58	.60	.45	.34	.19
정서적 고립	.50	.18	.29	.51	.55	.56	.46	.48	.32
사회적 고립	.34	-.03	.27	.47	.46	.49	.33	.12	.07
수줍음척도	.61	.36	.39	.54	.67	.58	.55	.41	.41
자아존중감검사	-.51	-.38	-.27	-.39	-.42	-.54	-.41	-.34	-.19
아동우울검사	.67	.48	.54	.56	.64	.54	.49	.28	.41
부정적 자기상	.62	.46	.50	.47	.60	.52	.44	.21	.36
대인관계	.60	.44	.48	.55	.60	.45	.38	.21	.33
부정적 기분과 신체증상	.56	.37	.47	.45	.51	.46	.48	.32	.41
사회관계척도	-.58	-.24	-.32	-.45	-.72	-.65	-.55	-.40	-.30
공격행동척도	.44	.57	.39	.25	.23	.11	.24	.30	.43

주 1. 상관계수가 절대값 .21이상이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순종적이고 분노표현이 어려워져 갖게 되는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C6)척도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책임감, 교우관계에서의 지나친 허용성이나 배려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C7)척도는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다른 하위척도보다 불안

검사 총점($r(118)=.52 .56, p<.01$)과 그 하위척도인 과도한 걱정($r(118)=.50 .49, p<.01$)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희생(C7)척도와 교우관계검사, 아동우울검사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교우관계문제검사의 하위척도 중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나. 준거 타당도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서 교우관계문제검사 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집단을 선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및 자아존중감 점수의 고저 집단에 따른 교우관계문제검사 분원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값은 표 5, 6과 같다. 우울, 수줍음, 불안의 고저 집단 간에는 모든 분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의 고저 집단은 과관여 분원을 제외한 모든 분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정서적 고립의 고저 집단은 통제지배와 과관여 분원을 제외한 모든 분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격행동 점수의 고저 집단은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을 제외한 모든 분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및 자아존중감 점수의 고저 집단별 교우관계문제검사 T점수 차이가 가장 큰 분원과 차이점수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표 5> 우울, 수줍음, 불안의 정도에 따른 분원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값

척도	우울			수줍음			불안검사		
	고	저	t	고	저	t	고	저	t
전체	78.33 (21.60)	27.89 (15.97)	7.83***	67.67 (25.26)	33.71 (18.84)	6.58***	55.58 (23.70)	31.45 (16.04)	4.84***
통제지배(C1)	7.54 (3.85)	3.52 (2.29)	4.55***	6.05 (4.17)	3.58 (2.95)	3.14*	6.00 (3.67)	2.89 (2.42)	4.39***
자기중심성(C2)	8.96 (3.98)	3.96 (2.49)	5.26***	7.12 (3.98)	4.29 (3.18)	3.62*	6.38 (3.19)	4.53 (2.82)	2.71*
냉담(C3)	8.52 (4.83)	2.00 (1.55)	6.42***	8.12 (3.92)	3.02 (3.42)	6.28***	6.18 (3.96)	3.74 (2.54)	3.21*
사회적억제(C4)	9.75 (4.77)	2.04 (2.13)	7.29***	9.70 (4.97)	2.64 (2.77)	8.11***	6.39 (4.22)	3.19 (3.00)	3.80***
비주장성(C5)	10.39 (4.84)	3.72 (3.22)	5.66***	10.70 (5.15)	4.16 (3.44)	6.92***	7.78 (5.03)	4.37 (3.46)	3.42*
과순응성(C6)	8.88 (4.27)	3.92 (3.55)	4.47***	10.24 (4.23)	4.74 (3.53)	6.45***	8.36 (4.41)	4.84 (2.98)	4.11***
자기희생(C7)	9.25 (4.17)	5.74 (4.35)	2.82*	9.95 (4.31)	6.09 (4.50)	4.04***	9.53 (4.42)	4.95 (2.93)	5.35***
과관여(C8)	8.04 (3.69)	4.80 (3.61)	3.17*	8.24 (5.17)	4.86 (3.32)	3.58*	7.29 (3.75)	3.51 (2.54)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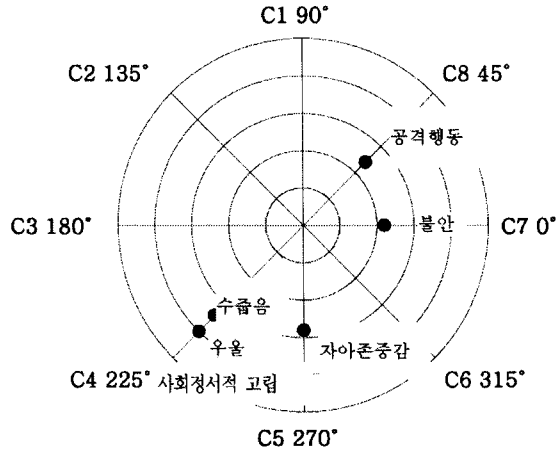
주 1.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01$

<표 6>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른 분원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값

척도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자아존중감		
	고	저	t	고	저	t	고	저	t
전체	80.50 (31.18)	35.04 (23.28)	5.78***	62.25 (25.29)	38.32 (24.20)	3.13*	30.94 (17.20)	71.59 (29.10)	4.96***
통제지배(C1)	5.80 (3.21)	5.33 (4.23)	0.45	7.48 (4.49)	3.32 (3.39)	3.44*	3.24 (3.08)	6.70 (3.64)	3.29*
자기중심성(C2)	8.67 (3.89)	5.00 (3.36)	3.70*	8.00 (2.68)	4.41 (2.56)	4.49***	3.74 (3.09)	6.90 (4.04)	2.77*
냉담(C3)	9.78 (4.23)	3.73 (3.34)	5.76***	7.05 (2.80)	3.73 (2.59)	4.08***	3.95 (2.37)	8.38 (5.63)	3.31*
사회적 억제(C4)	11.44 (5.12)	2.33 (2.75)	8.15***	6.23 (4.44)	4.68 (4.67)	1.13	3.19 (3.03)	8.75 (5.86)	3.80*
비주장성(C5)	12.33 (5.24)	2.74 (2.60)	8.52***	7.14 (4.13)	5.64 (4.55)	1.14	3.55 (2.80)	11.19 (5.36)	5.68***
과순응성(C6)	11.60 (4.83)	4.54 (3.59)	5.94***	7.18 (4.34)	5.27 (4.62)	1.41	3.85 (2.92)	9.81 (5.48)	4.31***
자기희생(C7)	10.37 (5.34)	5.41 (4.08)	3.84***	9.48 (4.51)	6.23 (4.55)	2.35*	5.71 (2.87)	9.80 (5.85)	2.82*
과관여(C8)	7.85 (4.49)	5.67 (4.68)	1.73	9.50 (3.99)	5.05 (3.76)	3.81***	5.71 (3.94)	7.89 (3.40)	1.87

주 1.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01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자아존중감 점수의 고저집단 간에 원형척도 T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분원을 살펴보면, 우울, 수줍음, 사회정서적 고립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소심하고 당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 분원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분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불안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책임감, 및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허용성이나 배려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 분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으며, 공격행동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고자 우호적 지배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 분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2]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행동, 자아존중감 고저집단의 T점수 차이가 큰 분원

다.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

<표 7>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교우관계문제검사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 체			4학년			5학년			6학년		
	남 (n=500)	여 (n=469)	전체 (n=969)	남 (n=162)	여 (n=149)	전체 (n=311)	남 (n=170)	여 (n=153)	전체 (n=323)	남 (n=168)	여 (n=167)	전체 (n=335)
전체(CT)	47.50 (25.56)	47.10 (27.55)	47.29 (26.56)	50.72 (25.19)	48.72 (30.32)	49.74a (27.78)	47.35 (25.66)	51.05 (27.13)	49.15a (26.41)	44.78 (25.65)	42.30 (25.00)	43.48b (25.30)
통제지배(C1)	5.28 (3.62)	4.73 (3.54)	5.01 (3.59)	5.41 (3.27)	5.12 (3.87)	5.27a (3.57)	5.27 (3.68)	5.01 (3.74)	5.14ab (3.70)	5.16 (3.88)	4.12 (2.95)	4.64b (3.48)
자기중심성(C2)	6.36 (3.69)	5.18 (3.52)	5.79 (3.65)	6.85 (3.77)	5.59 (3.76)	6.25a (3.81)	6.26 (3.58)	5.49 (3.50)	5.90ab (3.56)	5.99 (3.68)	4.54 (3.24)	5.26b (3.54)
냉담(C3)	5.70 (4.16)	5.02 (3.75)	5.37 (3.98)	6.16 (4.33)	5.41 (4.10)	5.80 (4.23)	5.57 (4.15)	5.23 (3.46)	5.41 (3.84)	5.38 (3.98)	4.50 (3.63)	4.93 (3.83)
사회적 억제(C4)	5.67 (4.57)	5.03 (4.42)	5.36 (4.50)	6.13 (4.62)	5.53 (4.64)	5.84a (4.63)	5.88 (4.66)	5.39 (4.35)	5.65ab (4.52)	5.01 (4.38)	4.28 (4.19)	4.64b (4.29)
비주장성(C5)	6.42 (4.74)	6.68 (4.97)	6.54 (4.85)	6.20 (4.66)	6.67 (5.11)	6.42ab (4.88)	6.86 (5.16)	7.33 (4.93)	7.08a (5.05)	6.18 (4.33)	6.08 (4.83)	6.13b (4.58)
과순응성(C6)	6.08 (4.16)	7.08 (4.80)	6.57 (4.51)	6.43 (4.10)	6.89 (4.94)	6.66 (4.52)	5.86 (4.01)	7.59 (4.83)	6.69 (4.50)	5.98 (4.38)	6.78 (4.65)	6.38 (4.52)
자기회생(C7)	7.34 (4.37)	7.66 (4.72)	7.49 (4.54)	7.79 (4.33)	7.84 (4.80)	7.81a (4.55)	7.44 (4.35)	8.82 (4.84)	8.10a (4.63)	6.81 (4.39)	6.44 (4.27)	6.63b (4.33)
과관여(C8)	6.14 (4.22)	6.06 (4.11)	6.10 (4.17)	6.68 (4.28)	6.31 (4.62)	6.50 (4.44)	5.67 (3.93)	6.41 (4.02)	6.02 (3.98)	6.11 (4.42)	5.52 (3.67)	5.81 (4.06)

주 1.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 p<.05).

8개의 하위척도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별; 남, 여) × 3(학년; 4, 5, 6학년)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다변량통계치인 Wilks's Lambda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성별($F(8, 783)=9.569, p<.001$)과 학년별 ($F(16, 1566)=4.240, p<.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F(16, 1566)=.737, ns$)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8개의 하위척도 중에서 자기중심성($F(1, 794)=19.612, p<.001$)과 과순응성($F(1, 794)=13.670, p<.001$)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중 자기중심성은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더 높았고 과순응성은 이와 반대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척도 이외의 통제지배($F(1, 794)=2.958, ns$), 냉담($F(1, 794)=2.918, ns$), 사회적 억제($F(1, 794)=3.182, ns$), 비주장성($F(1, 794)=.668, ns$), 자기희생($F(1, 794)=2.831, ns$), 과관여($F(1, 794)=.428, ns$) 척도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냉담($F(2, 793)=1.343, ns$), 과순응($F(2, 793)=.771, ns$), 과관여($F(2, 793)=2.537, ns$) 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통제지배($F(2, 793)=3.555, p<.05$), 자기중심성($F(2, 793)=3.779, p<.05$), 사회적 억제($F(2, 793)=4.012, p<.05$), 비주장성($F(2, 793)=3.365, p<.05$), 자기희생($F(2, 793)=11.418, p<.001$) 척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으로 사후 비교하였다(표 7).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후 비교한 결과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사회적 억제척도는 4학년과 5학년,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학년과 6학년 간에는 4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주장성척도는 4학년과 5학년, 4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5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기희생척도는 4학년과 5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4, 5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원형속성의 검토

척도가 원형배열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척도 간 상관을 구하였다. 교우관계 원형에서 하나의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척도끼리는 상관이 높고 그 척도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이 낮았으며 반대편 척도와는 상관이 가장 낮거나 부적 상관이 있었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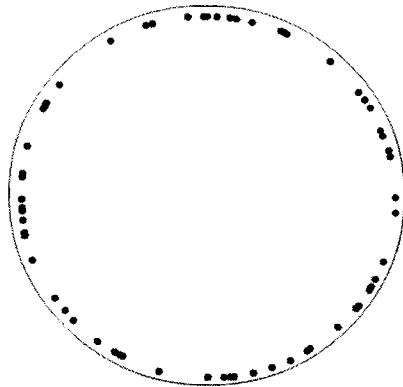
<표 8>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척도 간 상관

	C1	C2	C3	C4	C5	C6	C7	C8
통제지배(C1)	-	.65	.42	.38	.33	.36	.42	.69
자기중심성(C2)	.38	-	.59	.52	.49	.40	.32	.54
냉담(C3)	-.18	.09	-	.74	.66	.55	.45	.42
사회적 억제(C4)	-.43	-.20	.26	-	.77	.65	.53	.43
비주장성(C5)	-.57	-.32	.01	.31	-	.76	.59	.44
과순응성(C6)	-.46	-.48	-.27	-.06	.25	-	.72	.53
자기희생(C7)	-.21	-.47	-.39	-.27	-.13	.26	-	.62
과관여(C8)	.39	.02	-.40	-.49	-.50	-.23	.09	-

주 1. - 선 위는 원점수, 아래는 문항편차점수 간의 상관.

주 2. 원점수 상관은 $p < .01$ 수준에서 상관계수가 .30이상이면 유의미함.

주 3. 문항편차점수 상관은 $p < .01$ 수준에서 상관계수가 절대값 .09이상이면 유의미함.



[그림 3]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원형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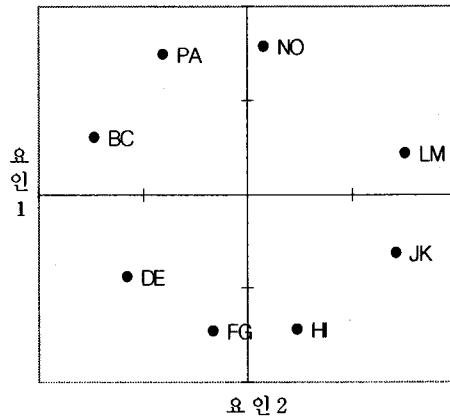
그리고 문항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각 문항의 편차점수를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표 9>). 그 결과 친애와 통제 두 요인에 대하여 각 문항이 가지는 요인부하량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요인부하량을 각도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각 문항이 원형 상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8개의 척도가 지배와 친애의 두 축에서 원형배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척도별 편차점수를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하였다. <표 9>는 교우관계문제검사 결과에서 추출한 요인 1과 요인 2의 요인부하량이며 이 요인부하량

을 근거로 두 직교차원의 원형공간에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요인 1은 친애 축, 요인 2는 통제 축이다. 그림을 보면 교우관계문제검사 하위척도들이 원형공간에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교우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요인구조

	문항편차점수		원점수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통제지배(C71)	-0.40	0.75	0.16	0.92
자기중심성(C2)	-0.73	0.30	0.35	0.75
냉담(C3)	-0.58	-0.44	0.73	0.37
사회적 억제(C4)	-0.16	-0.73	0.85	0.25
비주장성(C5)	0.24	-0.72	0.89	0.22
과순응성(C6)	0.71	-0.31	0.85	0.24
자기희생(C7)	0.75	0.22	0.69	0.37
과관여(C8)	0.08	0.79	0.36	0.79

주 1. N=969, 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



[그림 4]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요인구조

<표 10> 하위척도의 이론적 각도와 경험적 각도의 차이에 대한 코사인 상관과 A°값

척도	이론적 각도(1)	경험적 각도(2)	(1)-(2)	cosine 상관	A°
통제지배(C1)	90.00	118.20	-28.20	0.881	0.84
자기중심성(C2)	135.00	157.83	-22.83	0.922	0.87
냉담(C3)	180.00	217.44	-37.44	0.794	0.79
사회적 억제(C4)	225.00	257.41	-32.41	0.844	0.82
비주장성(C5)	270.00	288.21	-18.21	0.950	0.90
과순응성(C6)	315.00	336.74	-21.74	0.929	0.88
자기희생(C7)	0.00	16.22	-16.22	0.960	0.91
과관여(C8)	45.00	84.35	-39.35	0.773	0.78
평균			-27.05	0.882	0.85

그리고 각 하위척도들로부터 얻어진 경험적 각도가 원형모형의 이론적 각도와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Fisher(198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각 하위척도가 친애차원과 이루는 경험적 각도를 구하였다(표 10). 그리고 이렇게 구한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차이에 코사인(cosine)을 취한, 코사인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Fisher(1983)는 코사인 상관계수가 실제 부합도보다 더 부풀려진 수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합도의 해석을 위하여 다음 공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A^\circ = 1 - \theta/180$ (θ 는 비교되는 두 각도의 차이) Fisher의 A° 는 일종의 비율로서 0~1의 수치를 가지며 0은 두 각도 간의 완전한 불일치를, 1은 완전한 일치를 나타낸다(정남운, 2004).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 구성된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실제 각도가 이론적 각도에 대해 약 85%의 일치율을 나타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sher의 공식, $\chi^2_{(1)} = \sqrt{2n} \times \cos^2$ (n 은 범주의 수, 여기서는 8)은 실제 척도가 이론적 척도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경험적으로 구성된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각도와 이론적 각도사이의 평균 차이는 27.05°이었으며, 평균 코사인 상관은 .882이었다. $\chi^2_{(1)} = 3.111$ 로 3.84이상이어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이 영가설은 기각되지 못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교우관계문제의 성질과 그 정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교우관계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KIIP-C)를 근거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 또래나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우관계문제검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 예비규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의 아동이며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신뢰도와 타당도, 원형속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본 척도의 활용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우관계문제검사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존하므로 유사한 문항에 대한 수검자의 반응일치성을 평가하고자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비일관성척도는 전체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효과적이므로 문항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이 척도로 무선적 반응경향이나 수검자가 비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을 밝힐 수 있다.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70~.94의 범위(중양치는 .75), 반분신뢰도는 .67~.83의 범위(중양치는 .7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88의 범위(중양치는 .81)에 있었다. 이것은 대학생과 성인표본을 대상으로 구한 KIIP-C(김영환 등, 2002)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각각 .69~.93, .61~.84의 범위인 것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범위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척도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우관계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지표들과 교우관계문제검사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우관계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수줍음, 우울, 공격행동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교우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재는 척도인 교우관계검사, 사회관계척도, 자아존중감검사와 같은 지표와는 중정도 이상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전체점수와 불안검사,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수줍음척도, 아동우울검사, 공격행동척도의 전체점수와 .44~.67의 상관이 있었고, 교우관계검사, 자아존중감검사, 사회관계척도와는 -.51~--.58의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대학생과 성인표준화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KIIP-C 전체점수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지표와의 상관이 .44~.62이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우관계에서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C1)척도, 과관여(C8)척도는 공격행동척도와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고립이나 위축과 관련된 내담

(C3), 사회적 억제(C4), 비주장성(C5)척도의 경우 사회정서적 고립척도나 아동우울척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 우울, 수줍음, 불안, 사회정서적 고립, 공격 행동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서 교우관계문제검사 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별 점수의 고저집단을 선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분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원형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척도 간 상관을 구하고 편차점수를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원형에서 하나의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척도끼리는 상관이 높고 그 척도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이 낮았으며 반대편 척도와는 상관이 가장 낮거나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각 문항의 편차점수를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한 결과 친애와 통제 두 요인에 대하여 각 문항이 가지는 요인부하량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요인부하량을 각도로 변환하여 나타내보았더니 원형 상에 골고루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위척도들도 대체로 원형에 가깝게 배열되어 있었다. 이것은 KIIP-C 원형척도의 요인구조(김영환 등, 2002)와 비교해 볼 때 각 척도별로 위치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원형공간 내에 배열되어 있는 원형속성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하위척도들의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일치 여부를 Fisher(198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알아본 결과 경험적으로 구성된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실제 각도가 이론적 각도에 대해 각각 약 85%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정남운, 2004)의 97.1%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실제 척도가 이론적 척도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Fisher의 공식, $x^2_{(1)} = \sqrt{2n} \times \cos^2$ 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구성된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각도와 이론적 각도 사이의 평균차이는 27.05°이었으며, 평균 코사인 상관은 .882이었다. 교우관계문제검사의 $x^2_{(1)}$ 이 3.111로 이 영가설은 기각되지 못하였다. 즉 교우관계문제검사의 하위척도들이 원형공간 내에 배열되어 있는 원형속성은 대인관계 원형모형과 비슷하지만 각 분원별로 이론적 각도와 엄밀하게 비교했을 때는 이론적 위치에 부합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성과 연령에 따른 척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변량통계치인 Wilks's Lambda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성별과 학년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우관계문제검사가 하위척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별, 학년별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성별과 학년에 따른 예비규준을 작성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교우관계문제검사는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측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경험하는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예비규준을 제시하여 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편차 T점수로 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구체적인 교우관계문제를 밝히고

교우관계문제영역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상담이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교우관계문제검사의 T점수와 8개 영역별 T점수는 예비규준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느끼는 교우관계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척도의 편차 T점수는 한 개인 내에서 특정 영역의 교우관계문제가 다른 영역에 비해 더 심각한지를 나타내어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영역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차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영본(1981). 고등학교 학생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1996). 유아 및 아동의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1992). 수줍어하는 아동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원(1993).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2005). 해결중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 아동의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매뉴얼. 서울: 학지사.
-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2005).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지침서.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영환, 홍상황(1999). 대인관계평가도구의 표준화연구: 대인관계문제검사와 원형척도. 성격논총, 30, 537-594.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희경(2002). 가족관계,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의 부정적 정서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박은애(2006).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줍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1995). 아동교육심리. 서울: 숙명여대출판부.
- 성영혜,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2001). 아동심리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기은(1998). 협동작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만철(1992). 아동기의 노동감 수준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경(2005). 아동 우울과 지각된 교우관계, 교사,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양윤란, 오경자(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이현정(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원우논총, 12, 191-220.
- 장휘숙(2002). 청소년용 공격행동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81-96.
- 정남운(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정남운(2005).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83-598.
- 정수미(2002).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3권 교우관계. 서울: 동서문화.
- 정창윤(1997). 초등학교 아동의 수줍음과 자기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최진숙, 조수철(1990). 소아 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최홍식(1990). 주장훈련이 국민학생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승희(1993).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사회 정서적 고립척도 개발. 초등교육연구, 7(1), 19-32.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Fisher, G. A.(1983, September). Coefficients of agreement for circular dat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Detroit, MI.
- Horowitz, L. M.(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Horowitz, L. M., & Dryer, D. C., & Krasnoperova, E. N.(1977). The circumplex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R. Plutchik & H. R. Conte (Eds.), *Circumplex Models of Personality and Emotions* (pp. 347-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Horowitz, L. M., & Vitkus, J.(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169.
- Horowitz, L. M., Weckler, D. A., & Doren, R.(1983). Interpersonal problems and symptoms: A cognitive approach. In P. Kendall (Eds.). *Advances in cognitiv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pp. 81-125). London: Academic Press.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ventory of Peer Relation Problem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yeWon Jeong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aims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nventory of peer relation problems, which is based on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C). It also aims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ventory, and provide a preliminary norms. For the current study, inventory items were cull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C), various current scales dealing with peer relations of children, and a survey of children's peer relation problems. The preliminary items for each scale were administered to 220 fourth through sixth graders. The resulting skewness of distribution, kurto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tem-total correlation, internal consistency, and meanings of the items we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selecting the final 64 items. In order to check on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reliability of the final items and sca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46 fourth through sixth graders currently attending four elementary school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ternal consistency of the inventory of peer relation problems showed the range between .70-.94 (median value of .75), split-half reliability between .67-.83 (median value of .75), and test-retest reliability between .69-.88 (median value of .81). Inter-correlation of 8 scale scores and factor analysis results of individual ipsative scores showed that the circumplex property of inventory of peer relation problems is appropriate. Regarding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existing indices and scales related to peer relation problems, both convergence reliability and discrimination reliability were found to be fair. When the scale scores for the inventory of peer relation problems compared according to the factors of gender and grade, the primary effects of gender and grade were statistically meaningful whereas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grade

were not.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constructed an inventory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eer relation problems specific for children and provided preliminary norms.

부록.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

1. 다음의 내용들은 누구나 친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각 문항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친구나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불편을 느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하나 골라서 ■하거나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하시되 반드시 한 가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2. 이 검사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자신과 같거나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을 고치고 싶을 때는 먼저 답한 것을 지우거나 ×표를 하고 다른 답란에 ●해 주십시오. 시간제한은 없으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답해 주십시오.

※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이 친구나 또래관계에서“~ 하기가 어려워서”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아이들을 잘 믿지 못하는 편이다.	○	①	②	③
2. 다른 아이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해 주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3.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4. 여러 아이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5.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6. 다른 아이들에게 “싫어” 또는 “안 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7. 가까운 친구에게 화내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8. 다른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9. 다른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0.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1. 내 요구가 정당하다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2. 다른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3. 내가 먼저 다른 아이들에게 만나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4.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	①	②	③
15. 화가 나 있더라도 표현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6.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른 척하기가 힘들다.	○	①	②	③
17. 다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8. 다른 아이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	①	②	③
19. 내 감정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	①	②	③
20. 주장이 강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말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1. 다른 아이의 감정이 상할까봐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2. 다른 아이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3. 한번 싸우거나 미워한 친구와는 다시 친해지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4.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5.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	①	②	③
26. 싫어하는 친구라도 그만 만나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7. 다른 아이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8.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9.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편하게 행동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30.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	○	①	②	③
31.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할 때가 많다.	○	①	②	③

※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이 친구나 또래관계에서 “너무 또는 지나치게 ~하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다른 아이들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자주 싸운다.	○	①	②	③
33. 친한 친구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해서 힘들 때가 많다.	○	①	②	③
34. 친구들로부터 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	○	①	②	③
35. 다른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지나치게 말한다.	○	①	②	③
36. 다른 아이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	○	①	②	③
37. 다른 아이의 기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	①	②	③
38.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	①	②	③
39. 다른 아이들을 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	①	②	③
40.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①	②	③
41. 다른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	①	②	③
42. 다른 아이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	①	②	③
43.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아이들에게 쉽게 짜증이 난다.	○	①	②	③
44. 다른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	①	②	③
45. 다른 아이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	①	②	③
46. 생각이 달라서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툰다.	○	①	②	③
47. 다른 아이들을 지나치게 의심한다.	○	①	②	③
48.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	①	②	③
49.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	①	②	③
50.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	①	②	③
51. 다른 아이들의 일이나 행동에 너무 참견하고 싶어 한다.	○	①	②	③
52.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	①	②	③
53.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 무시한다.	○	①	②	③
54. 내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보잘 것 없다고 자주 느낀다.	○	①	②	③
55. 다른 아이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	①	②	③
56. 다른 아이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보면 너무 도와주려고 한다.	○	①	②	③
57. 다른 아이들로부터 너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	①	②	③
58.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할 때가 많다.	○	①	②	③
59. 나는 친구들 일보다 내 일을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①	②	③
60.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	①	②	③
61. 다른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잘 대해준다.	○	①	②	③
62. 다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	①	②	③
63. 친구들과의 정이나 의리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많다.	○	①	②	③
64. 친한 친구들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	○	①	②	③

※ 하위척도 채점 통계지배(C1): 2, 32, 35, 39, 42, 46, 52, 58
 자기중심성(C2): 1, 17, 22, 27, 43, 47, 53, 59
 냉담(C3): 3, 9, 12, 18, 23, 28, 36, 40
 사회적 억제(C4): 4, 13, 19, 24, 29, 48, 54, 60
 비주장성(C5): 5, 10, 11, 14, 20, 25, 30, 63
 과순용성(C6): 6, 15, 21, 26, 31, 49, 55, 61
 자기희생(C7): 7, 16, 33, 37, 44, 50, 56, 62
 과관여(C8): 8, 34, 38, 41, 45, 51, 57, 64